

제44차 정기 대의원 총회

지난 4월 22일(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
힐튼호텔 지하
그랜드볼룸에서 제44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등 내빈과
240여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제 44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막식

이날 대의원 총회는 전체 3부로 나뉘어 1부 개회식, 2부 회의록 검토 및 9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FDI 사업·결산 보고, 전문치의제도 심의보고, 감사보고, 3부에서는 95년도 사업·예산 심의 및 FDI 사업·예산 심의, 일반안전 등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는데, 1부 개회식은 정관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9시 25분경 시작하여 변석두 대의원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전윤식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 낭독이 있었으며, 변석두 의장의 개회사와 김경균 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와 치과의사가 하나 되어 세계화에 대응하며

세계화의 침범이 되자고 밝혔다. 또 박상천 구강복지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고, 외국 기술의 유입에 대비하자고 강조하며, 국민의식 변화를 강조, 치과의사의 주장을 합리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있는 시상 및 상패수여에서는 전북 吳慶瑞 지부장, 강원 姜賢珪 지부장, 경북 鄭敎賢 지부장, 대구 李相一 지부장, 서울 安博 지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강원지부의 金成河씨, 경남지부의 朴然洙씨가 21회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부의 朴允秀씨가 치과의료문화상을, 경기지부의 尹昌赫씨가 제 3회 치과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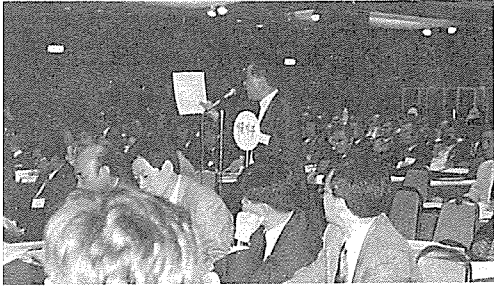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또 3개의 업체와 3개 지부 金讚淑, 金英洙, 李麟圭, 李漢茂씨가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부 李鳳遠 대의원 외 34명이 표창패를, 대구·경북지부 崔成華씨가 직원표창 모범상을, 치협 元容燮, 朴周植씨가 직원표창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윤희철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 2부는 43차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록 검토,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제 85차 FDI 서울총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 보고 그리고 감사보고로 진행되었다.

제 43차 총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94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에서는 회원들의 보험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전윤식 부회장은 단체퇴직연금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보험 해약시 가입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교보측과 재협상에 있다고 밝혔으며, 정관회 총무이사는 43차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부족으로 부결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상식 장면



대의원 발언 장면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덴탈실을 부활시키자는 등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구강진료센터 건립건 사회봉사 차원에서 예산 확보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 85차 FDI 서울총회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에서 윤홍렬 조직위원장은 제 85차 FDI 총회를 1997년 9월 5~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 보고에서 변석두 위원은 제 4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치과의제도에 관한 결의 사항들이 충족될 때까지 전문치과의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고, 대전·충남지부에서 상정한 구강악안면외과만 우선 실시하자는 의안에 대하여 3부 지부상정의안 심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2부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감사보고에서는 현 19개 분과 학회 외의 학회승설의 인정 문제와 외국치대 출신자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 국가고시원 설립 건, 치과의사의 지자제

선거 출마, 행정쇄신위원회에 전문의제도 보완 요청 등의 질의와 보고가 있었다.

邊碩斗 의장의 사회로 계속된 3부에서는 9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6억 5천 7백여 만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제85차 FDI 서울총회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3억 5천 6백여 만원의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정기총회 장면

법제이사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된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선거공명제로 인한 선거운동 기간 및 선관위 업무 시행일자의 불충분을 지적 정관 16조 2항의 현행 10일 전까지 입후보하는 것을 15일로 개정하였으며 회장단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5항을 추가 삽입하여 선거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제24조(대의원 신임)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조항의 부당함을 지적, 개정을 요하는 바 "대의원은 총회 출석시 각기 소속 지부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대의원은

총회 출석시 각기 소속된 지부에서 발행하는 대의원 신분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부칙 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각 직할시"는 "광역시"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 진행된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일반의안 8가지와 협회의안 2가지가 상정되었는데, 첫번째 광주지부에서 상정한 비영리 법인단체 치과의원 개설에 관한 건은 제주지부의 오득제 대의원의 동의안 제출로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되었으며, 대전지부에서 상정한 치과방사선 장치 관리규정(요건)의 완화에 관한 건과, 전북지부의 입회시기에 따른 년회비 차등납부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지부의 치과보조인력에 관한 건, 대전·서울지부의 의료보험수가 문제에 관한 건은 서울지부 김일경 대의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집행부 수임 사항으로 넘기고 1년 뒤 결과를 보고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세번째로 논의된 전문치과의제도에 관한 건은 작게 6가지의 지부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그중 첫번째로 대전·충남지부에서 상정한 치과전문제의 제도 구강외과 우선 실시에 관한 건은 많은 공방이 있는 가운데 서울의 안 박대의원의 제안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총 203명 투표에 96명 찬성, 107명 반대로 11표 차이



무기명 투표 장면

로 부결되었다. 또 대전지부에서 상정한 제 4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사항 준수 촉구 건은 철회되었으며, 서울지부의 보건복지부의 전문치과의 제도 강제시행 반대의 건은 거수투표 결과 찬성 66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어 협회가 상정한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의안은 차기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후, 폐회하였다.

제 23차 보건의 날 보건복지 세계화 원년으로

지난 7월 제 2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박상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한 중앙병원의 민병철 병원장 등 3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전 간호협회 회장 박정호씨 등 2명에게 목련장이, 대한항공 전무이사 최동빈씨 등 2명이

석류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옥기, 손정자, 권태섭씨가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전부산직할시 치과의사회장을 지낸 김명득 원장을 비롯 8명에게 표창이, 이회영씨의 6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성장에 걸맞는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사회복지 발전 계획,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금년이 보건복지분야의 세계화 원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 날 표어로 채택한 『오늘의 건강생활 내일의 행복약속』 『규칙적인 생활습관 지켜지는 나의 건강』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대한구강내과학회 정기총회 성황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김영구) 제 24차 정기총회가 지난 6일 서울치대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회무, 결산보고에 이어 95년도 사업계획으로 내년 6월에 열리는 구강내과학회 창립 25주년 기념학술대회 준비와 4회에 걸친 학술집담회,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신년도 예산 2천 6백 59만여원을 통과시켰다.

또한 학술집담회에서는 기우천(전남대)교수의 『미국구강안면통통학회 참가보고』 강연이 있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정기총회 성황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김계중) 제 32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5일 엠배서더 호텔에 성대히 개최되었다.

김계중 회장은 지난 의료법 시행령 개정시 『예방치과 및 공중보건학도 전문치과 진료 과목으로 되었다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에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94년 회무 결산보고에 이어 신년도 예산 1천 4백여만원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아시아 예방치과학 준비를 위해 11월 열리는 종합학술대회를 여행연습차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술강연에서는 김진범 교수의 『일본의 구강보건현황』 등 2연제가 발표되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조규중) 제 35차 정기총회가 지난 1일 대구시 그랜드 호텔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제 99차 학술집담회에서는 단국치대 신동훈 교수의 『복합레진을 이용한 구치부 수복』 특강과 전공의 학술발

표 10연제가 강연되었다.

95년 사업계획으로 한·일 보존학회 학술교류 확대, 전문의 연구 小委 활성화로 제도적 미비점 완비, 학회지 증간 등을 확정했다.

한·일 방사선과 학술교류 경희치대·아사히 치대

경희치대 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동문회(회장 진태윤)는 지난 3월 31일~4월 2일간 일본 아사히 치대 치과방사선과 후지시다 교수와 동대학 동문회 간사인 고토씨를 초청 TMJ의 방사선 진단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한·일 동문회간의 교류식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류가 있었다.

서울대학교·부학장제 신설 -학장보 폐지 등 직제개선

서울대는 각 단과대학별로는 학장보(교무학장보·학생학장보)직제를 없애고 부학장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15일 처·실장 회의에서 학장보·원장보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상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 부학장제를 신설기로 하고 관계법인 서울대 설치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그동안 교수들이 공무해외 여행시 본부의 결재 행정절차가 복잡했던 것을 간소화시켜 학장과 총장사이의 3단계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치대에서는 기존의 학장보를 현학장의 임기 완료일인 5월 14일까지 존속하기로 했다.

대한악관절연구소 설립기념

강연회 성황

대한악관절연구소(소장 정훈)가 주최하고 국립의료원 치과 총동창회 후원으로 지난 4월 1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대한악관절연구소 설립기념 Kino Koji 및 Sugisaki Masashi 교수 특별 강연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서울치대 구강진단과 정성창 교수 및 최구영 국립의료원 치과 동문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강연회는 악관절질환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TMJ에 관해 기초부터 임상까지 5시간에 걸쳐 자세한 강연이 있었으며,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 등 각 분야에서 TMD를 전공하는 선생님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또한 행사장 앞에는 8개 업체가 참가한 기자제 전시도 있었다.

95년 치과의료보험수가 주요 개정사항

(95년 4월 1일부터 시행)

- 치과의원 정액본인 부담금 조정 : 3,300원→3,400원
- 의원급 종별가산율 조정 : 9%→10%
- 소아치과 20%가산
 - 즉치, 치수절단 충전 방사선 촬영 항목에 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 와동형성 항목 추가(8세미만)
 - 내복약 처방조제시 (6세미만)
- 장애인 (뇌성마비, 정신지체인)초, 재진불문 진찰료에 500원가산
- 차-7생활발수즉일근중, 차-8생활발수즉일근중시
- Barbed-Broach, Reamer & File 재료대 산정
- 가압근중 인정
- 차-23치석제거 (1/3약당) 복잡 1,340원→3,000원
- 차-54악골종양수술 상·하악 및 양성, 악성으로 구분하여 수사 대폭 인상됨

치과용 서식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도서출판 현대의학사에서 치과용 서식 일체를 구비하여 주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277-8867/266-8398 팩스 268-5301